

한울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6 NO.1 2016.03.13
편집: 홍보 위원회

THE
MARCH
ISSUE

제직임직식
당회소식
위원회소식
장로 은퇴사
부서소식
유아세례 간증문
은사공동체
행사 및 광고
새교우 환영반

권두언

이영길 목사

준비되었나요?

작년에 거의 기록을 깨는 눈폭풍이 몰려 와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였을 줄 압니다. 특히 집안에 물이 새는 고충을 겪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줄 압니다. 저희는 큰 피해는 안 보았지만 거의 마지막 쯤에 제 서재 창문을 타고 물이 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날이 따뜻해지면서 곧 멈추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일찍이 snow rake를 구입했습니다. 지붕에 눈이 쌓이면 곧 치울 마음으로... 다행히 아직은 그렇기 많은 눈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난번 갑작스런 눈이 와서 저는 처음으로 snow rake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자의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네 지경을 넓히리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려 하시는데 함께 준비해야겠습니다.

Editors:

김진홍

김한나

김희진

박신영

정은아

윤경문 목사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제직임직식

올해 2016년도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제직들과 재임 제직들의 임직식이 2월 7일 2부 예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재임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임직 받으셨으며, 아울러, 박영철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제직 임직식을 통해 충성된 주님의 제직들로 섬기기로 헌신을 다짐하신 모든 제직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재임 장로 (3명): 김세철, 엄재관, 이정규

재임 안수집사 (21명): 김은정(A), 김현주, 김준구, 김진기, 박선희, 박진욱, 신보경, 손영권, 이경환, 이동화, 이재익, 이지훈, 이승연, 이원걸, 윤미자, 윤선미, 안명훈, 조유미,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서리 집사 (10명): 김명희, 김승욱, 김혜민, 박미정, 박지혜, 심진희, 이재명, 이혜숙, 정현아, 최정규

아울러, 새롭게 선출되신 아래 제직들은 제직 교육을 마친 후 9월에 안수, 임직 받으시겠습니다.

신임장로 (2명): 이유택, 한문수

신임 안수집사 (8명): 김명은, 김희현, 광서영, 남궁원, 이성희, 장영준, 정은아, 정하균

권사 (3명): 고경아, 김영숙, 이정숙



당회소식

당회에서는 2016년도에 섬길 당회의 각 위원회, 교구장 및 구역장, 소그룹 성경공부반 인도자를 아래와 같이 임명했습니다 (도표참조). 청년2부 담당 총책임 교역자는 윤경문 목사로 하고, 현재 유년부 담당 교역자인 김수영 전도사를 2016년 2월 1일부로 청년2부 담당 부교역자로 겸임토록 했습니다.

2016년도 당회 및 각 위원회

당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한승희 장로	
	재단 이사회	장양술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운영위원회	이정규	이유태
	건물 관리위원회	엄재관	
	교육1부 위원회	김세철	
	교육2부 위원회	김영범	한문수
	교육3부 위원회	권복태	방경남 집사
	교인1부 위원회	이문영	윤미자 집사
	교인2부 위원회	이정민	김동규 집사
	국내선교위원회	이선영	유승오 집사, 이해원 집사
	해외선교위원회	안성완	김경애 권사
	예배예술위원회	장양술	
		1부찬양대장: 엄재관	2부찬양대장: 김영범
	재정위원회	권복태	김준수 집사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김영범	한문수 집사
	홍보출판위원회	박신영	
	역사편찬위원회	박신영	
	집사회	정광근 집사	집사회 고문: 이정규
	인사위원회	당회서기 한승희	이사장 장양술, 이정규 당회장 이영길(당연직)
공천위원회	박신영	권복태	
회계 감사	이문영		
노회 총대	당회서기(당연직) 한승희	김영범	

[2016년도 공천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부위원장: 권복태 장로; 안수집사 대표: 차민호 집사; 상록기도회/권사 회 대표: 김정립 권사; 서리집사 대표:채수경 집사; 마리아/에스터 선교회 대표:하은혜 집사; 청년 1부/청년 2부 대표: 엄순호 교우]

2016년도 교구장 및 구역장

반 이름	인도자	부 인도자	반 이름	인도자	부인도자
베드로반	권복태 장로	홍경자 장로	요한반	강운범 집사	박종열 집사
다니엘반	김동숙 집사	이숙재 권사	바울반	정하균 집사	정현아 집사
안드레반	김영순 집사	남궁 원 집사	부부청년반	한문수 집사	문형근 집사
빌립반	이선영 장로	김동규 집사	강의식 성경공부	이요한 목사	

소그룹 성경공부반 인도자

교구	교구장	구역장	교구	교구장	구역장
북동 구역	장양술	최정열	중서1 구역 중서2 구역	김영범	방경남 김제성
북서 구역	박신영	윤미자	중서3 구역 중서4 구역	엄재관	유승오 김진기
중앙 1&2 구역	한승희	유안나/이정희	남동 구역	김정선	박종세
중앙 3 구역 중앙 4 구역 중앙 5 구역	안성완	이태호 김동규 신보경/손영권	남서1 구역 남서2 구역	이정민	유안나/이정희 한정인
			영어구역	김세철	이혜승

국내선교위원회 소식

2016년도에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미국내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선교 사역과 긍휼사역을 통해 교회의 선교적 지경을 넓혀가려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사역을 펼쳐감을 통하여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이웃을 만나고, contact point를 찾아 직, 간접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위치한 Brookline을 비롯하여 미국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 긍휼을 펼쳐고자 합니다. 긍휼사역으로는 홈리스 쉼터 봉사, 미국 원주민 사역, Women and Girls Thriving in Brookline, 탈북자돕기(LINK) 등을 활발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국 원주민 선교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국내의 단기선교 가능성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새롭게 Brookline의 low income women & girl들을 돕는 지역사회 project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웃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허물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 사역인 Oasis café music Night도 장승호팀(4월 2일, 토)과 B2B의 뮤지컬팀(6월11일, 토)을 초청하여 가질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선교위원회 소식

해외 선교위원회는 3년마다 단기 선교지 평가회를 거쳐 다음 선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년마다 단기 선교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과 우리 선교팀의 활동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선교지를 조사하고 전체 선교위원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3번째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마치고 나서, 2015년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친 단기선교 평가 회의에서 2016년부터 과테말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과테말라 선교지와 김도연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신 윤원길 장로님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과테말라 김도연 선교사님 부부께서 본교회를 방문하셔서 과테말라 선교지와 선교사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기는, 과테말라 치세(Chisec)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김도연 선교사님은 의료/치과/약국 등 의료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Youth Group 과 젊은 학생들이 과테말라 현지 Youth group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같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교육 Program을 많이 강조하시고 젊은 학생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선교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겠지만, 특히 이번 선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과테말라 La Aurora 공항에서 치세까지는 차로 7시간이 걸리는 쉽지 않은 선교 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 발생한 Zika virus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전에 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정으로 선교단을 파송할 예정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안전을 위해 교인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 은퇴사

박영철 장로



어릴 적부터 저는 하나님과 나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대학에서 유전학과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암 연구소에서 Section Head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저는 Southfield, Michigan 에 있는 Detroit 연합장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7-8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3명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포기하여 아무도 7-8학년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7-8학년 학생들을 수년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1시

간 가르치기 위하여 10-15시간씩 공부하던 생각이 납니다. 결과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중에 2세 목사가 된 사람도 있으니.

그러나 저는 제가 선생이라기 보다는 성경과 성서를 많이 배우는 학생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만심과 자존심이 강한 저를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훈련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1991년에 보스턴으로 이사와 보스턴한인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부족한 저를 본교회 집사와 장로로서 섬길 수 있었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영길 담임목사님, 제직 여러분들, 보스턴한인교회의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퇴 후에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은퇴식은 오늘이지만 실질적으로 은퇴한 것은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계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얼마 동안 살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세계로 퍼졌고 어떤 경로로 언제 한국땅에 들어왔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르며 아담의 후손이 남긴 역사와 고적과 유물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공부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6개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주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을 즐기고 아담의 후손이 남긴 고적물과 유물을 보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는 Message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맥, 남미의 Andes 산맥, Patagonia, Nepal, Singapore, Thailand, Bali 등을 여행했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과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Peru, Bolivia, Alaska, Turkey 를 여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보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서소식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노윤경 집사

마리아 여선교회는 2월 7일에 임시총회를 가지고 2016년 한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임원들을 소개합니다. 고문은 이성혜, 김향인, 윤선미, 부회장 전현임, 총무 한정인, 서기 김희현, 회계 이정희, 봉사부장 김영희, 선교부장 고경아, 친선부장 이성숙, 그리고 회장 노윤경입니다. 올 한 해 마리아 여선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안과 밖 일들을 해나갈 때 언제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도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교우님들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가 맡고 있는 1부 예배 다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주님의 환영의 인사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소식

곽서영 집사

에스더 여선교회에서 일을 한 지 이제 삼 년째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구역 아줌마들 따라 큰 행사 때를 중심으로 가끔 도왔었고, 말씀 공부나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더욱 가치 있는 곳인데 반해, 에스더 여선교회는 봉사만 하는 곳이며 전교인의 밥을 거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원도 아닌 회장으로 제의를 받은 해에 저는 “제가 준비가 되지 못했고 여건도 여의치 않습니다.”고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해에 마침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많은 행사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제가 본 에스더 여선교회의 모습은 정말 많은 행사들을 부엌에서 도와야 했기에 그런 모임의 회장이란 정말 힘든 자리라고 여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해는 부회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말 부엌에서 밥하는 일이 너무 많고 노동 강도가 세어서, 시험에 들어 집에 와서 평평 울거나 다신 이런 일 안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다음 해는 회장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해는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담대하게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자원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심을 받았으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덕에 평안한 마음과 웃음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스케줄-제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일들로 구성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늘 일을 자주 크게 벌리고 감당 못해서 꼭 일의 직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적어도 남들에게는 안 그런척 해도 남편과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서의 지난 한 해는 알게 모르게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부회장을 했던 그 해는 하나님이 안보이시는 것 같아 몸부림쳤었는데, 작년회장을 하면서는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쁨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일했던 자매들의 사랑을 많이 누렸습니다. 에스더는 매주 다과와 강단 헌화를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준비해 드리고, 각종 행사에서 각 구역이나 부서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야 하며, 전교인들이 쓰는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상 누구 한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주님의 도우심과 자매들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날씨는 다르지만 사순절 기간,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끝날 것 같지 않던 긴긴 겨울이었고, 많은 눈과 추위가 있었습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색깔이 있는 가벼운 옷차림을 한 것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드디어 눈들이 많이 녹기 시작하고 밑의 흙을 드러내는 것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로마서에 있는 주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라는 말씀이 이 겨울을 겪고 봄을 느끼면서 새삼 다가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세상 만물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보며 주님의 정확하시고 오묘하신 능력을 봅니다.”

우리는 겨울이 지나갈 것을, 그리고 봄이 다시 올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에스더 여선교회도 보스톤한인교회와 함께 무척 오랜 시간을 지내왔고, 많은 사람들과 걱정들과 간증들이 지나갔었을 겁니다. 올해는 부부청년부를 경험한 많은 젊은 자매님들이 임원으로 일하게 되어, 모두가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새 임원들에게서 계속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북동 구역 소식

구역장 최정열 집사

북동구역은 최근 몇 년간 구역모임이 뜸했던 것이 구역 식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활동하던 장양술/김정림 장로, 김재영/윤향중 집사, 박숙 집사 가정에 최정열/허경희 집사, 강모영/박선영 집사, 최정환/한세진 집사 가정이 합쳐져 올해 1월부터 새로운 구역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후 7시에 구역모임을 가지기로 하였고, 다른 구역 식구도 초청하여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안에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구장으로는 장양술 장로, 구역장으로는 최정열 집사께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강모영/박선영 집사 가정이 태교 중이고, 5월 중순이 분만 예정일로 잡혀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 구역은 언제라도 오픈되어 있으니,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구역이나, 성도께서는 구역장인 최정열 집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북동 구역 위에, 온 기관 위에, 보스톤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선교회

회장 최정열 집사

2015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가져 신임 회장에 최정열 집사, 부회장에 지훈 집사가 선출되었고, 서기에 홍성일 집사, 회계에 한문수 집사가 임명되었으며, 2016년 1월 19일에 임시총회를 거쳐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확정되었고, 각 부 부서장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올해 남선교회의 표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라고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주 일부분인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아래로는 유년부를 잘 보듬고, 위로는 상록회 어르신들을 잘 모셔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2월에 설날맞이 놀이마당과 헌신예배, 3월에는 쉼마의 밤 특순, 4월에는 해외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 5월에는 낚시대회, 6월에는 청년부 식사, 7월에는 무숙자 쉼터 방문, 8월에는 친목 골프대회, 9월에는 추석행사, 10월에는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11월에 정기총회 순으로 매달 행사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 2월 7일 개최되었던 남선교회 주최 설날맞이 놀이마당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셨고, 특히 웃놀이에는 총 22개팀 88명이 참가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영범 장로의 규칙 안내와 이원걸 초대 남선교회 회장의 진행으로 순조롭게 이어졌으며 우승은 청년1부의 모(More)조팀이 2등과 3등은 마리아 여선교회 소속의 해피조와 아줌마조가 차지하여 푸짐한 상품을 수상하였습니다. 총 250명 기준으로 준비한 국밥 점심은 보이지 않게 부엌에서 수고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정환 집사는 포스터 제작 및 사진촬영을 담당하여 주었고 이창호 전임 회장은 게임 말판을 제작하여 기증하여 주었습니다. 여러 부서장들과 임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섬기고 있는 남선교회에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부청년부 소식

정은아 집사

우리 교회는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여러 행사를 통해 3세대가 모이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이 잘 이어져 왔고,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어져 가는 그 길에 부부청년부가 있습니다. 매 해마다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쏟아 부어지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인해 기쁨의 웃음과 감동의 울음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을 처음 맺은 우리는 맞춰가는 과정에서 힘이 들 수 밖에 없는데, 그 힘을 반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자리매김하는 인생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위로와 힘의 통로가 되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부 청년부의 한 해 사역은 매우 심플하지만 한 가지도 빼 수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부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엄마, 아빠, 자녀의 자격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사역도 그대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해도 어김없이 그 순서대로 부부청년부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월(1) - 새가족 환영회, 생일축하 모임, 환송회, 부청 졸업식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격한 환영과 떠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축복의 기도로 담아내는 일은 거의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 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부터 아빠, 엄마까지 함께 기뻐하고 케이크를 나누는 일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의 부부청년부 새가족은 신종근/홍별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부청년부에서 여러가지 역할로 섬겨주신 박종원/안원미 가정의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떠나보낸 저희도 떠나간 두 분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계속 나눌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귀한 선배님들... 오형석/박해인 가정과 최학수/최안나 두 가정이 부부청년부를 졸업하시고 새로운 섬김의 장으로 살짝 옮겨 가셨습니다.

두 가정에서 심어주신 믿음의 기도가 부부청년부의 영적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섬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후배들은 배운 그대로 충성된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1월(2) - 나눔의 시간과 찬양 기도회

사람은 모두 연약하여 혼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간증과 선교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보고들을 통해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회장단의 기도와 준비로 찬양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되었고, 안성환 장로님의 선교보고 및 나눔의 시간을 통해 신앙의 큰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2월 - 목사님 말씀, 출산 소식

부부청년부의 건강한 성장의 가장 큰 핵심이 김진철 목사님의 매달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는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형근/이지영 가정에서 ‘문라함’이 태어났고 호종명/박수연 가정에서 ‘호세립’이 태어났습니다. 새생명 탄생의 소식은 늘 기쁘이고 감격이 됩니다. 라함과 세립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부부 청년부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축복하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부청년부의 사역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1부 소식

회장 김효인 교우

사순절이 시작된 몇 주전, 2월 11일 목요일 새벽부터 하나님께서는 청년1부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에 처음 가게 된 저는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니 벌써 찬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찬송가를 열어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눈처럼 사르르 녹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꼭~ 껴안은 것 같이 어찌 그리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배후 기도중 청년1부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1부와 함께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꼭! 사랑으로 함께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회장으로써 청년1부를 섬기는 동안 부흥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길 소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깨어서 기쁨과 감사를 도저히 감출수 없는 예배를 드릴수 있기를요. 저와 청년1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웠으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부엌의 맛있는 냄새를 따라 베이글과 커피를 먹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듯, 테이블에는 청년1부 친구들이 여러 명 앉아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놀라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년 1부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3주가 지난 지금 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게는 17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당으로 이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새벽기도 후에 교회 어르신들과 또 청년1, 2부 식구들과 함께 먹는 베이글과 커피는 너무도 달고 맛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달콤합니다.

고난의 사순절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청년1부를 기억해주시고 부흥의 씨앗을 심고 뿌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해바라기 주일학교의 사순절

김수영 전도사

어른들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일 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생각과 신체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주 다르게 다가옵니다. 작년에는 다 이해하지 못하였던 작은 의미들도, 올해에는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일들이 어린이들의 사순절에 일어납니다. 작년에는 너무 어려서 시도해보지 못한 사순절의 다짐들을, 올해에는 용기있게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라서 대강절 (Advent)과 사순절 (Lent)을 헛갈리기도 하지만, 막상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 어린이들은 그 누구보다 깊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가까이에서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신앙을 확인하게 될 때면,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목회적 도움 (pastoral intervention)이 필요나 할까 싶을 때가 많지만, 그저 그들의 신앙 여정에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몇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Living Sanctuary Project - 3년째 해오고 있는 사순절의 결단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중에 매주 부르는 봉헌 찬양 가사에서 이름을 따온 행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living sacrifice”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요. 사순절 기간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회하는 목적으로 creative하게 절제와 선행, 혹은 기도를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초콜릿을 give up하기도 하고, 어떤 어린이들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어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가정일을 더 열심히 돕겠다고 결심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이를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 God's Kingdom Wristband - 연초부터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의 구절에서 함께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사랑, 평화, 용서)을 기억하게 해주는 팔찌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Keeping a Holy Lent”라고 써있는 팔찌를 사순절 동안 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주변에 올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 평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Lenten Scripture Reading -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 정해진 성경봉독자가 나와 시편과 복음서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매주일 어린이들이 나와 시편에서 한 편, 복음서에서 한 문단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참회를 주제로 선택된 말씀들을 읽고 또 들으며 우리의 묵상이 깊어집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귀한 사순절의 전통이 단 몇 가지의 이벤트성 행사들로 잘 지켜지리라 감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 복도와 친교실에서 베풀어주시는 온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 기도가 큰 힘입니다. 늘 어린이들의 예배와 삶에 주목해주시는 보스톤 한인교회로 인해 해바라기 주일학교의 사순절은 올해에도 거룩하게 지켜집니다. 그 안에서 어린이들은 거룩하게 자라납니다.

청년 2부 소식

담당 목회자 윤경문 목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현 회장단(회장 장승호, 부회장 이소진, 총무 이대경)과 임원들(박한나, 정운원, 황수잔), 리더들(배유미, 박초롱, 반아영, 김영돈)이 한마음이 되어, “세상에 심기워진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청년 2부”란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로서 윤경문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시며, 올해 2월부터 김수영 전도사님께서 부교역자로 함께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 18-20일(금-주일)까지 수련회를 Edward House Retreat Center (Framingham)에서 가집니다. 구약 윤리를 전공하신 전성민 교수님을 모시고 세상 속에 심기워진 그루터기들로서 어떻게 공적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각도에서 다루며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Youth group -Passion, Hunger, and CFC (crazy for Christ)

교사 김지은 교우

청년의 때를 믿음의 공동체인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주일 학교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얼마되지 않아, youth group 담당 집사님이신 황동준 집사님과 만나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20살이 넘어 유학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youth group은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 한국어반이 필요하다며 Youth group에 한번 와 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다. 내 믿음생활조차도 부족한 나인데, 과연 교사를 할 자격이 있을까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고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처음 예배에 참석한 주일,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모태 신앙이었던 나는 성인이 되어서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인 아이들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

처음 youth에 참석하였을 때는, 담당전도사님의 부재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의 예배하는 아이들의 열정은 너무나도 뜨거웠다. 아이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소리없이 뒤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이제까지 섬기고 있다.

youth group 안에 함께 할 선생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th group 학생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을 기다리며 언제나 환영한다. 또한 이번 2016년도에는 지난 가을에 오신 전도사님과 Passion, Hunger, and CFC (crazy for Christ) 라는 표어로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youth group이 되길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마음을 모으고 있다. 예배는 갈급함과 열정을 담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youth group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청년 1부

해바라기 주일학교, God's Kingdom Wristband

청년 1,2부 (송구영신예배 특송)

12월 세례자 간증

유아세례 간증문

박상철 이해원 가정 (박승아, 박지아)

2015년 7월 13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상철, 이해원 부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자녀이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 인데, 저희에게는 하나도 아닌 두 명을 허락하셔서 두 배 이상으로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기에 부족하고 또 조금은 철없던 신혼 생활을 보내왔던 저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종종 자녀 계획을 갖고 상의하고 싶어하는 듯 했으나 공부와 전문의 수련으로 바빴던 저에게는 그저 아직은 조금 더 미래의 일이 아닐까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쳐가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에는, 그토록 미루어 왔던 2세 계획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조바심도 들고 간절함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가장 좋을 때 주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2014년 여름, 전문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저희 가정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이 돼 가고 자리를 잡아갈수록 자녀에 대한 조바심 또한 더욱 커져 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놀라우신 하나님은 드디어 저희에게 사랑의 결실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 마음속으로 절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쌍둥이 육아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주변의 우려와 걱정도 종종 들려왔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크나큰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부부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High risk pregnancy 라는 이유로 늘 주의사항을 되새겨 주며 우려를 보였지만 임신기간 내내 아내는 건강하고 큰 무리 없이 태중에 아이들을 잘 키워 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아버지인 제 생일과도 같은 날에, 우리 쌍둥이 승아와 지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아빠에게 조금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아빠와 같은 날 태어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개월째 접어든 두 아이들, 아직 밤에 자주 깨기는 하지만 건강하고 항상 엄마 아빠를 웃게 해주는 재간둥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니 만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쓰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가 바라기는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고 밝으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두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매로서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를 늘 배려하며 늘 마음이 부자이기를 바라는 기도제목도 있습니다. 이번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배우며 약속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승아와 지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아세례 간증문

신정욱/최윤희 가정 -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하은 (Joy Haeun Shin) 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너를 부족함이 많은 아빠 엄마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을까?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유아세례를 앞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유아세례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네가 태어나고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와 보내주신 사랑을 통하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다.

아빠 엄마는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안에 참 기쁨을 누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은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 믿는다. 분명히 네가 자라나서 바라보는 세상은 아빠가 바라보던 세상과는 많이 다르겠지. 그리고 항상 유쾌한 일들만 너에게 일어나지도 않을테고. 슬퍼서, 실패해서, 두려워서 주저앉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임을 알기에 아빠 엄마의 어깨가 무겁구나. 하지만 이를 통해 아빠 엄마 역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날 것을 생각하니 더 없이 기쁘구나. 아빠에게는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너의 웃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정신차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말을 시작하게 되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때 너의 첫 감사의 고백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아빠는 벌써부터 참 설레는구나.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의 성적표가 나오겠지? 그때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구나.

유아세례를 축하하고 너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From 아빠 2015년 12월 11일)



우리 목사님의 기도

김영경 장로

지난 해 우리 목사님께서 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소개하셨습니다. 얼마전 워싱턴 한인교회의 김영봉 목사님의 설교를 접했는데, 그 설교에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소감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하루의 생활이 하나님 어땠나요?

하나님 마음에 드셨나요?

괜찮았나요? “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괜찮았나요? 아버지 마음에 드셨나요?’ 라고 드리는 기도에 대해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봉목사님께서 아주 짧지만 충분한 기도이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귀를 나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며, 기도 속에 잠이 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며 설교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워싱턴 한인교회 성도님과 김영봉 목사님에게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이영길 목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늘 즐겁게 해 드리는 귀한 종입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하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바치렵니다.

사진 동호회

유승오 집사

요즈음은 어른, 젊은이, 어린이 거의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에는 1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고성능의 카메라가 버튼 클릭 한번으로 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진동호회라 하면 고급 카메라와 렌즈를 써서 예술적이거나 희귀한 대상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지요. 이제는, 각자 편안한 기종 (폰카메라, dSLR, Mirrorless Interchangeable, ...)으로 자신의 관심사, 일상 주변의 재미있는 일 등을 다큐먼트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 보려는 바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전할 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진은 작품의 완성도 못지 않게 그 현장성도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두고 온 비싼 카메라보다 호주머니에 지금 들어있는 똑딱이 카메라가 백 배 더 유용하다"는 말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때 예수의 사도 중 한 명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요. 매년 저희들의 일상 삶이 교회의 캘린더와 맞물려 어떻게 돌아가는 지 돌이켜 보세요. 웃놀이를 새해를 즐겁게 시작하고, 젊은 이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경학교를 가고, 수양회를 가고, 졸업을 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임직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고, 손주가 태어나서 놀이터에서 놀고, 낙엽이 지고 눈이 오고 촛불을 다시 켜고...

사진동호회의 일원으로서 KCB의 여러 이벤트에 재능기부를 하는 가운데, 한 장의 사진 안에 아름다운 찰나를 담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순간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 사랑, 화목과 긴장의 모습, 그 속에 다양하게 숨어있는 관계성을 알게 모르게 한 frame안에 함축해 보전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벽에 전시되어있는 60년 사진전을 많이 보셨죠. 괴이한 헤어 스타일, 나팔 바지 등이 재미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 세월을 초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고스란히 잡혀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교회의 official "사진사" 한 분이 구닥다리 camera로 힘들여 잡아 왔다면 이전 그 작업을 crowd-sourcing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동호회 활동과 관심의 영역이 교회 안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관심이 street photography이든 journalism, 또는 Nature이든 그 다양성과 풍성함을 그 자체로서 즐기고 또 그 열매를 교회 안팎으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동호회에 참가한 분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끌리는 스타일의 사진을 찍고 나누고 배우는 즐거움에서 자신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다보면 또한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긋함이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서로 간에 은근히 전달되는 보람이 따를 것입니다. 아울러 사진을 찍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여러 분들도 즐겁게 찍히시는 일에는 너그러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료는 드릴 수 없겠지만, 언젠가, 70주년 아니 100주년 사진첩 등에 "2016년 32 Harvard Street" 지금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차림새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래 오래 진행될 KCB group portrait 작업에 동참하는 일이니깐요.



교회행사 및 광고

사순절 (2/10-3/27)

올해 사순절 기간은 2월 10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3월 27일(부활절)까지 지켜집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은 용서와 참회, 절제와 구제 등의 신앙적 실천과 훈련을 하는 계절입니다. 올해에도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신앙의 실천과 함께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월-금: 오전 6시, 토: 오전 8시). 이른 아침, 십자가상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에 교우님들을 초대합니다.

2016년도 KCB 사순절 묵상집 발간

올해도 교우님들이 직접 쓰신 묵상의 글들을 모아 제작된 사순절 묵상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원고를 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교회 웹사이트 www.kcboston.org의 Resource에 가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쉐마의 밤 (3월 19일(토) 오후 6:30분)

3세대가 함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 되어 가는 축복을 누리는 쉐마의 밤이 이번 3월 19일(토) ECC Chapel에서 열립니다. 원래 홀수 달 마지막 토요일에 열리는 쉐마의 밤이 3월에는 부활절 관계로 한 주 앞당겨져서 19일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청년부들의 참여를 통해서, 11월에는 유년.초등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특별 순서를 통해서 더욱더 다채롭고 감동이 있는 쉐마의 밤을 가졌습니다. 이번 3월에도 3세대가 함께 어울려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쉐마의 밤에는 신임제직들이 순서를 맞고, 남선교회의 특순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금요일 예배 (3월 25일)

성금요일 예배가 3월 25일(금) 오후 7:30분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성금요일 예배에는 말씀과 아울러 찬양대의 “ Mass in G, Franz Schubert – Kyrie, Gloria, Credo, Sanctus, Benedictus“ 찬양이 들려지겠습니다. 부활절 백합화이나 튜올립 헌화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성금요일에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 주일 (3월 27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3월 27일(주일)에 있겠습니다. 성만찬이 있겠으며, 부활절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Brookline Open Studio 교우님들의 미술 작품 전시 (홍보위원회)

4월 30일 Brookline에서 열리는 Open Studio 에 우리 교회의 예술하시는 교우님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김현지 권사님의 서예 작품, 이재옥 도예, 전아사 쉼트, 김희정 회화작품들이 전시되겠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작품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ECC Community Center).

자선 연주회 “Voices of Harmony” (5월 14일)

오는 5월 14일(토요일, 오후 7:30) 우리 교회 본당에서 Benefit Concert 위원회 (위원장:김영범 장로) 주관으로 자선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우리 교단(PCUSA) 소속의 이웃 교회를 돕기 위한 행사라서 더욱 뜻깊은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Benefit Concert 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사회, 찬양대 등 여러 부서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와 서로 간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악회 프로그램은 Mozart, Piazzola, Gershwin, Strauss 등 클래식에서 재즈까지 구성되어 있어 다채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퍼토리들이라서 가족 전체 이벤트로 참여하신다면 좋은 추억의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출연하는 연주자들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최고의 수상 경력을 지닌 재원들입니다. 모두 교회에서 찬양대와 청년 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음악가들입니다. 자선음악회는 최혜민(비올라), 박기나(바이올린) 교우의 협연으로 Mozart의 “Sinfonia Concertante”가 1부 첫 순서로 연주되고, “Summer time”, “You will never walk alone”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과 작곡가 Strauss의 대표적 성악곡 “Morgen”등이 조유미 집사(소프라노)의 노래로 들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재즈 음악의 거장 Piazzola의 대표작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가 안지혜(피아노), 고은애(바이올린), 문태국(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삼중주로 연주되며, 장승호 교우의 재즈 앙상블 연주로 Piazzola의 곡들이 음악회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음악회의 지휘는 박진욱 집사가 맡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교우 환영반 소식

교인 위원회에서는 새로 오신 교우들께 우리 교회와 교단을 소개하는 새교우 환영반을 3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첫 주에는 자기 소개 및 짧은 신앙 간증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을, 둘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단(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 교육을 마친 후, 교우님들 가정에서 초대하여 주시는 환영 만찬을 가지며 서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 주시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원걸/전신애 권사님 가정 (2015년10월), 권복태/서명숙 장로님 가정 (2015년 11월), 이문영/김춘미 장로님 가정 (2015년 12월), 이유택/김희정 집사님 가정 (2016년1월)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10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유세환 / 유안나 권사 가정은 중앙 2구역 소속 이시고 자녀로는 딸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 생활을 하십니다.

김홍수 교우는 사업차 워싱턴 DC에서 보스턴으로 오시게 되었고, 남동 구역 소속이십니다.

박준희 / 이은혜 가정은 부부 청년부 소속으로, 박준희 교우의 학업 차 보스턴에 오셨고, 현재 BU 법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3살 된 딸 소이가 있습니다.

최영석 / 이유정 가정은 부부 청년부 소속이며, 미국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자녀는 딸 우주가 있습니다.



11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손우성/김미경 가정은 미시간 앤아버에서 4년전 보스턴톤에 오셨고, 손우성 교우는 현재 Boston University 예방 치과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서 3구역에 속하십니다.

이성윤/양수연 가정은 아들 호준(4살)을 두고 있으며, 신앙을 진지하게 배우면서 경험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성윤 교우는 Tufts University 국제 정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서 2구역 소속이십니다.

금중범/이진아 가정은 두 아들, 노아(15살)와 이삭(11살)이 있으며, 호주에서 보스턴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중서 3구역 소속이십니다.

강은하 교우는 분당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하버드 MPH 과정으로 연수 오셨고,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곧 보스턴에 올 계획입니다. 중앙 3구역 소속이십니다.



12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우승범/변현미 가정은 5년전 뉴저지에서 직장 차 보스턴으로 오셨고, 아들 (호산, 5th grade), 딸 (예들, 2nd grade)이 있습니다. 중앙 5구역에 속하십니다.

박송영/김소연 가정은 박송영 교우가 Boston University Medical Center에 Postdoctoral 연구원으로 오시게 되어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김소연 교우는 대학에서 거문고를 전공하셨고, 현재 우리 교회 하늘소리 사물놀이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딸 (재미2살, 재아 1살)이 있으며, 부부 청년부 소속이십니다.

황규라/서정희 가정은 현재 부부 청년부에서 총무로 섬기고 계시며, 딸 (애린, 5살)과 아들 (애반, 3살)이 있습니다. 서정희 교우는 Harvard

Medical School에서 Postdoctoral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은영 교우는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Postdoctoral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에는 5년 전부터 출석하셨으나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이번에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들 (상민, 16살)이 있으며, 오전 성경 공부반에 매주 참석하시며 신앙을 기르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신종근/홍별님 가정은 1살 된 자녀 하은이와 함께 작년 8월에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신종근 교우는 한국 LG에서 7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고 현재는 BU(MBA 과정)에 재학 중이시고, 홍별님 교우는 교회에서 성가대,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셨고 대학에서 보컬과 음악이론을 강의하시다 남편 따라 보스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노동현/김은숙 가정은 딸 다정(1살)을 두고 있으며, 노동현 교우는 97년에 미국에 오셨고 치과 의사로 일하시다가 최근에 치과를 개업하셨습니다. 김은숙 교우는 Architect로 건축 설계 일을 하시다가 현재는 아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정무일/정명자 가정은 현재 따님 집에서 함께

계시면서 어린 손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무일 선교사님은 파라과이 의료 선교사(한 의사)로 캘리포니아 동양선교회로부터 파송받으셔서 10년간 섬기시다가 작년 11월에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중앙 2구역 소속입니다.

김승택/김영희 가정은 자녀들 유학 차 미국에 오시게 되었고, 현재는 은퇴하시고 따님 집에서 함께 계시면서 어린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LA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중앙 4구역 소속입니다.



FOR MORE PICTURES:
GOO.GL/YJWURV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for more info · www.kcboston.org

READ ONLINE



GOO.GL/P9DJJK